

치 사

10·27 법난이 일어난 지 35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군홃발에 짓밟혔던 불교계의 깊은 상처는 18년이 흐른 뒤에서야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들은 28년이 지난 후에서야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27 법난의 이면은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불교 전체와 피해자들이 받은 핍박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이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오류와 아픔을 시정하고 치유하기 위해선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필요하지만, 우리 불교계에서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역사 저편으로 잊혀져가는 10·27 법난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재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 불교계에서 수행해야할 마땅한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10·27 법난을 주제로 공모 미술전을 첫 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은 세상을 재현하는 창이라는 말처럼 시각을 통해 가장 뚜렷하게 과거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번 미술전은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사진으로 10·27법난을 상기시키고 아직 남아있는 잔해를 다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명한 창이 될 것입니다.

미술로 승화하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출품해주신 작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본 행사가 지금까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운영위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10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